## 두산생물자원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 공장견학 실시

# '축산인 새내기들 꿈을 키우다'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대표 윤영호)는 지난 해 11월 27일 중앙대학교 축산학과 학생들에게 공장 견학을 진행하였다. 축산인의 꿈을 가진 새내기 학생들에게 백두사료는 매년 2회 정도 공장견학 및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개개인의 진로설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중앙대학교 예비졸업생 40여명은 두산그룹 및 사료회사에 대한 소개와 공장견학, 축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으며 축신인으로서의 꿈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원료수입부터 사료제조공정까지 생산라인을 견학하며 현장실습을 경험하였고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자리를 통해 깊이있고 심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만족해 하였다.

## (주)동진BLS

# 광범위 성장촉진 영양제출시

(주)동진BLS(총괄대표 김상중)는 100% 유럽산 고품질 원료를 사용한 종합비타민제를 개발하여,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당사는 보조사료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원료수입부터 배합, 농가직판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유통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자 직접유통을 통한 고품질, 합리적인 가격을 실현시켰다.

이로써 농가에서는 고품질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해졌으며, 농가 생산성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본 제품의 특징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유효성 및 안정성 확보, 수분함량 5% 미만, 안정성이 높은 원료로 변질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출시품목은 DJ비타, DJ비타골드, DJ 토탈솔루션, DJ 보어, DJ카우 등 총 5개이며, 포장단위는 각각 20kg이다.

## 오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우진비앤지㈜ (대표이사:강석진, 민운기)는 지난 12월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오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동시에, 이날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로 표창에서 우진비앤지 중앙연구소 하상우 부장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해외사업부 강재구 이사가 '한국무역협회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이 행사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수출액을 집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탑을 수여한다. 우진비앤지 측은 "이번 오백만불 수출탑 수상은 동물의약품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 최초이며, 이는 다국적 기업과 현지 기업의 틈새에서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끈질긴 노력으로 이뤄 낸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우진비앤지㈜는 2005년 해외 수출을 시작하여, 매년 꾸준히 성장하다가, 최근 3년 동안 연간 50% 이상의 급격한 성장을 보여왔다. 항생제 사용규제에 대처한 기술개발과 상품의 다각화, 지속적인 신 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활동을 통하여, 지난해까지 당사 전체 매출의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수출은 2012년 전체 매출의 40%로 늘어났다. 그 결과, 2010년 백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2012년 오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우진비앤지㈜는 2005년, 베트남과 중국으로 수출을 시작하여, 현재 동남 아시아를 비롯한 러시아, 동유럽, 중동, 남미 등 세계 16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밖에 10여 개 국가에 제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신 시장,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가 성사되고, 각 나라별로 등록 진행중인 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2013년에는 올해보다 50% 늘어난 800만~9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15차 AAAP 총회 -제2회 WooGene B&G Award 시상

지난 해 11월 26~30일 태국에서 열린 제15차 AAAP(아시아 태평양 동물자원학회) 총회에서 제2회 WooGene B&G Award 시상식이 있었다. AAAP는 2년마다 열리는 학회로 지난 2010년 대만에서 개최된 제14차 AAAP에 이어 두 번째로 우진비앤지상이 시상식이 이루어 졌다.

WooGene B&G Award 시상

WooGene B&G Award 상금을 전달하고 있는 강석진 회장

금번 수상자는 일본 토호쿠대학의 노상근 교수로 가축의 지질대사와 내분비 조절에 관한 연구(Lipid metabolism and endocrine regulation in farm animals) 및 가축의 성장과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선정 되었다. 시상자로 참석한 강석진 회장은 AAAP의 WooGene B&G Award로 인하여 아시아 태평양 축산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더 나아가 건강한 축산 식품으로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2012 축산 · 사료 연구기술대상 시상식 열어

### 각 분야의 업적을 시상하여, 연구 및 발전 독려

2012년 12월 13일 재단법인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이보균)은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2012년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 · 사료 연구기술대상" 시상식을 열고, 축산 · 사료 분야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이보균 재단 이사장은 "올해로 15년을 맞이한 문화재단은 〈삶을 풍요롭게, 지역사회를 풍성하게〉라는 비전으로 주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미 있는 활동들을 전개하였다"고 말하며, "축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만들어가도록 건강한 재단법인으로 연관산,학,관계 및 지역사회와 교감하고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지혜를 모으고 꾸준히 노력하겠다" 고 인사하였다.

이 날 개인부문으로는 손용석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심금섭 천안연암대학 축산계열 교수 및 학과장/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정석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세균질병과 과장/한재용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단체분야로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였다. 김진필 한농연 수석부회장은 "한국 농업과 축산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하며, "카길애그리퓨리나도 양질의 사료를 축산인들에게 공급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주)팜스코

### " 낙농 우수목장의 날 " 성황리에 개최

㈜팜스코(총괄사장:정학상)는 지난 해 12월 7일 전북 고창에서 '진도목장(대표: 박명수) 팜스코 낙농 우수목장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홍열 축우특판부장은 어려운 낙농 시장상황에서 국내 목장의 평균 육성우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적절한 번식관리 및 착유우군 질병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제시하며, 향후 낙농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적 육성우 사육두수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시장상황에 맞는 목장의 경영전략도필요하며특히국내평균유사비가 60%를 넘는 시점에서 착유우군 정예화를 통하여 사료효율 극대화 및 유사비 절감을 달성해야만, 경쟁력 있는 낙농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사양가분들의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정창민부장의 진도목장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최근 5년간 두당 평균유량 27kg/두에서 거래 시작후 6개월 평균 두당 평균 산유량이 33kg/두까지 증가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사장님의 성실함이 기본이 되고 팜스코의 체계적인 농장 점검과 서비스 그리고 금년 5월에 출시된 루멘임팩트 시리즈의 접목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설명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는 루멘임팩트 시리즈의 장점인 '안정적인 반추위 기능 유지'가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천하제일사료, 익산공장 착공식 거행

# 년 180만톤 달성을 위한 발판 마련

천하제일사료가 지난 12월 12일 '제일사료 익산공장'의 증축공사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천하제일은 2016년 비전목표인 '연간 180만톤 달성'과 '새로운 50년'을 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익산공장 증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격하게 영하로 내려가 버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착공식에는 총괄사장, 생산관리 본부장, 마트 담당임원, 영업본부장, 판매본부장 및 타공장 영업, 마트, 생산, 일반관리 관계자 들과 익산공장 공사 관계자, 익산공장 전 가족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하림그룹 유영태 사목의 기도와 말씀으로 무사히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도 가졌다.

공장이 완성되면 익산공장은 월 4만톤, 년간 50만톤의 생산규모를 지니게 된다. 생산 제품으로는 양계, 양돈 사료를 중심으로 충남, 전라 남·북, 경상도 서부지역에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존에 인천, 함안, 대전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의 종류가 단일화 되고 전문화를 통하여 생산성과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하제일사료 윤하운 총괄사장은 "한국 최고의 1등 사료공장으로 발돋움 하는 익산공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착공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과 천하제일사료 전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